

300-111. 신문조서(金俊淵 외 31명 치안유지법 위반) 10

■ 金俊淵 등 32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예심 문서 수록

- 피고인 신문조서에 이어 예심종결 결정이 1929년 10월 28일에 있었다. 편철된 순서로 살펴보면 1929년 9월 12일 서대문형무소장이 예심판사에게 보낸 피고인 행상보고로서, 피고인 32명 전원의 관리에 대한 태도 및 참고사항을 조사 보고하였다.
- 1929년 10월 14일 韓林에 대한 신문조서, 1929년 10월 15일 韓林의 2차 신문 조서 및 林炯日의 2차 신문조서, 동 16일 金南洙, 溫樂中의 2차 신문조서와 동 16일 金俊淵의 3차 신문조서, 동 18일 金聖鉉의 3차 신문조서, 동 21일 崔益翰·姜炳昌·朴洛鍾의 3차 신문조서, 동 22일 鄭益鉉·康守盛·朴自甲·河弼源의 2차 신문조서, 동 23일 金炳一, 金華坤의 3차 신문조서, 동 24일 金니코라이, 姜東柱의 3차 신문조서, 그리고 金昌洙·白南杓·鄭志鉉·李樂永·李仁壽·崔昌錫·李廷允·盧百容의 2차 신문조서가 있다.
- 다음에 都貞浩에 대한 예심청구서가 10월 25일자로서 있고, 2차 신문조서, 동 24일에 宋寧燮·李平權·姜大洪·金應水·宋彦弼의 2차 신문조서에 이어 예심종결에 따른 검사의 의견서가 있다.
- 1929년 10월 28일의 예심종결 결정에서 盧百容·宋寧燮은 면소되고 그 밖에 30명은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뒤로는 구류갱신 결정, 변호인 선임계, 보석신청 등 관련서류가 있다. 都貞浩는 1930년 3월 28일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출감하지 못하고 29일 새벽에 사망하였으며, 1929년 12월 7일 金聖鉉이 보석된 바 있다.
- 이 밖에, 1930년 1월 15일 金俊淵의 사실보충 신청서와 4월 12일 林炯日의 진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 공판에 회부결정을 한 이유를 보면, 金俊淵은 1926년 11월 20일경 경성부 崇三洞 자택에서 당원 梁明, 安光泉의 권유를 받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고 12월 6일 경 중앙간부의 일원이 되어 선전부장에 선출되었다. 그 후 책임비서로 천거되었으며, 韓偉鍵을 책임자로 한 세포에 속하여 1926년 11월 20일부터 1927년 11월 22일까지 활동하다 파벌적 투쟁이 발생하여 중앙간부의 힘으로는 수습하기 어렵고 경찰의 추적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껴 梁明에게 임무를 맡기고 사직하였다.
- 崔益翰은 1927년 4월초 東京市 小石川區 雜司谷 朴洛鍾의 하숙집에서 朴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金聖鉉은 1927년 11월 6일경 杜稷洞公園에서 梁明의 중용으로 입당하여 金俊淵을 후계하여 金聖鉉은 책임비서, 崔益翰은 宣傳部長이 되었다.
- 河弼源은 京城府 江把洞 164 자택에서 梁明의 권유, 金炳一은 1927년 11월 하순 堅志洞 金聖鉉의 집에서 金의 권유에 따라 입당하고 3일 후에 경기도당의 책임자로 천거되었으며, 河弼源은 세포의 책임자가 되고, 金炳一은 그 세포에 예속하게 되었다.
- 白南杓는 1927년 10월 중순 黃海道 信川郡 溫泉面 溫泉里 信昌旅館에서 李京鎬의 권유에 의하여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황해도당 선전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 金니코라이는 1926년 10월 중순 河弼源의 하숙에서 중용되어 입당하고, 동년 11월 하순 金鉉洙가 조선공산당 현황보고를 위하여 제3국제공산당에 파견될 때 통역으로 수행하고 12월 초순 귀국하였다.
- 姜東柱는 1927년 10월 초순 梁明의 하숙에서 朴成春의 권유로 입당하였으며, 金昌洙는 1928년 1월초 崇三洞 139 金光洙의 집에서 金炳一의 권유로 입당하였다. 金華坤도 같이 입당한 바 있다.
- 李仁壽는 1926년 겨울 金越星의 권유로 입당, 鄭志鉉은 1927년 3월 하순 中國 上海에

체류중 朱鍾建의 권유로 입당, 洪甫疇은 1927년 5월 중순 崇二洞 河弼源 집에서 권유를 받고 입당, 都貞浩는 1928년 1월 하순 溫樂中의 집에서 입당하였는 바 姜東柱의 권유에 의한 것이다. 이때, 宋彦弼과 金南洙도 입당한 바 있다.

- 崔昌錫은 1927년 모스크바에서 金鏗洙의 권유로 입당, 李樂永은 1928년 1월 25일 桂洞 崔昌錫의 하숙집에서 崔의 권유로 입당하였다.
- 溫樂中은 1927년 4월 하순 崇二洞 자기의 하숙집에서 金萬圭의 권유에 따라 입당하였으며, 李廷允은 露西亞 체제중인 1927년 8월 梁明의 중용으로 입당하여 1928년 1월초 귀국할 때 제3국제공산당과의 통신용 암호를 휴대하여 책임비서 金聖鉉에게 전달한 바 있다.
- 朴洛鍾은 1927년 4월초 東京市 小石川區 자기의 하숙집에서 安光泉의 권유에 따라 입당하여 당원을 모집하고, 東京에 공산당의 지부인 日本部の 재건을 기도하였다. 이때, 朴洛鍾은 책임비서, 崔益翰은 조직부 책임자, 韓林은 선전부 책임자 가되었다.
- 鄭益鉉은 1927년 4월 중순 朴洛鍾의 하숙에서 朴의 권유로 입당하여 日本部に 배속되었으며, 姜炳昌은 1927년 5월초 朴의 하숙에서 권유를 받아 입당하고 日本部に 예속되어 검사위원이 되었다.
- 또한, 河弼源·金華坤·林炯日·溫樂中·宋彦弼 등은 高麗共產青年會에 입회하여 책임비서 조직부장 등 간부직에 취임하였다. 姜東柱·都貞浩·金昌洙 등도 입회하여, 趙紀勝을 책임자로 한 세포에 소속하였다.
- 당시의 피고인인 이들 30명은 모두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고 고려공산청년회에 입회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운동하였는 바, 그것은 나아가 공산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운동이었던 것이기도 하다.